

사회

- ☑ 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 ☑ 계약해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수험생 악덕상술 요주의

교재·물품 강매...올해도 어김없이 기승

광주 모 고교 3학년에게 재학중인 A(18)군은 지난 18일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학교를 방문한 B社 영업사원으로 부터 컴퓨터자격증과 관련된 홍보용 DVD를 건네받았다. 영업사원은 "내용을 본 뒤 수강료를 지불하고 인터넷 동영상 수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DVD 내용을 살펴 본 A군은 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 반품했으나 개봉했다는 이유로 1개월에 5만원의 대금을 청구한다는 청약계약서가 집으로 날아들었다.

전남 모 고교 3학년인 B(18)양의 집에서 C社 전화상담원과 통화 중 특별 이벤트 기간이므로 영문잡지를 대폭 할인해 연 8만원에 판매하는 안내를 받았다. B양은 구독의사를 밝히고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렸다. 며칠 후 영문잡지를 수령했지만 B양의 어머니가 뒤늦게 이를 알고 C社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C社에서는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연례행사처럼 악덕상술이 고개를 내밀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말부터 새 학기 이전인 이듬해 2월 까지 수험생을 겨냥한 전화 및 방문판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예외 없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생을 포함 미성년자에게 각종 자격증교재 및 어학교재, 잡지 등의 구입계약 해약에 관한 상담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상담건수는 전국적으로 231건에 달한다. 피해 사례별로는 고등학생이 국가기관에서 소개받았으며 걸려온 전화를 통해 영업회사로부터 어학교재를 구입했으나 부모님과 상의 후 다시 해약을 요구하자 업체가 거부하는 등 학생 상대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길거리에서 응모권과 설문조사 등을 작성하면 선물을 준다고 접근 후 당첨과 할인혜택 등을 미

끼로 물건을 구입하게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각종 취업 관련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교 동아리 선배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도 있다. 판매업자들은 소비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 핑계를 대며 청약철회를 미루거나 강압적인 언사를 통해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기도 해 그 피해는 더욱 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영업을 위한 전화가 걸려오거나 방문판매를 맞이하더라도 우선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며 "민약 구입을 했을 경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야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 시 문의는 1372 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72)로 하면 된다. 한편, 광주YWCA는 지난 23일부터 광주지역 10개 고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3 수능생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 중이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26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주민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동 북구청장과 새마을 부녀회 등 50 여명의 주민이 함께 했으며 김치는 이주여성들에게 전달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김장시기 내달 9일 적기 평년보다 빨라져

광주에서는 올해 김장을 조금 서둘러 담아야겠다. 기상청은 최근 '2010년 김장시기'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김장시기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광주는 평년보다 이를 빠른 12월 9일에 김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밝혔다. 전남 내륙 및 서해안 지방은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남해안 지방은 12월 15일 이후에 김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김장을 너무 늦게 할 경우에는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인해 배추와 무가 얼게 돼 재맛을 내기 어렵다"며 "일기예보를 잘 활용해 김장 시기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주말·휴일 기온 뚝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광주·전남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으며, 바람때문에 체감온도가 떨어지겠다"고 밝혔다. 비가 그친 뒤 서해안 일부 지방에서는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 늦게나 밤에 산발적으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1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신안 우이도 해상서 어선 전복 4명 실종

신안군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2시25분경 신안군 우이도 남쪽 1km 해상에서 한 어선이 뒤집혀 표류중인 것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또 다른 어선의 선원이 발견, 목포어업정보통신국과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정 6척, 해양구조대원 8명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과 함께 어선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뒤집힌 어선은 지난 23일 오전 목포시 동평항을 출항한 뒤 연락이 두절된 7t급 개량간양망 어선 K호이며, 당시 K호에는 선장 김모(46·목포시 산정동)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 조완기기자 wncho@

620만명 개인정보 유통시킨 20대 구속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26일 인터넷 사이트 회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24)씨를 구속시켰다. 노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께 부산시 서면 모 PC방 등지에서 김모(32)씨로부터 15개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총 62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개인정보에는 모 인터넷 쇼핑몰 회원 338만명, 모 유명 포털사이트 회원 30만명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이메일이 포함돼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절도범들 '독특한 옷' 때문에 덜미
○광주 도심서 무대로 5개월 동안 수십대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자판기를 털어온 10대들이 '독특한 옷' 때문에 붙잡혀 경찰사형.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16·중학교 3학년) 등 11명은 지난 22일 새벽 3시10분경 광주시 서구 상동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돼 있던 김모(31)씨의 오토바이를 포함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총 24대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자판기 7대를 터는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같은 동네 또는 학교 친구사이인 이들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RUSSIA'라고 적힌 옷을 입고 범행하는 모습을 발견한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덜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학교·학원·체육시설 성범죄자 퇴출

경찰청, 취업제한 기관 전과자 확인·해임 요청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대거 퇴출당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가 종사하는지를 해당 시설 관리·감독 부처에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부처는 취업 제한자의 재직 사실을 적발하면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해당 기관·시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적발된 취업 제한자의 해임을 요청하고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을 폐쇄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남뉴스

김충식 前해남군수 징역 5년

서울고법 벌금 1억900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6일 군에서 벌이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 때 공사발주를 비롯한 공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뇌물액수가 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겨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올해 3월 조영업체 A사가 26억원 규모의 '평광마을 경관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

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남뉴스

허영철 해남부군수 영장
광주지법 특수부(김호정 부장검사)는 26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허영철 해남 부군수(광주일보 11월 26일 6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바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80대 노모는 아들 죽음도 모르고...

연평도 희생 김치백씨 영광 고향마을 침통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숨진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61)씨의 고향인 영광군 남면 대덕리에는 26일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고향에 홀로 있는 김씨 팔손 노모의 충격을 우려해 아직까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다녀온 김씨의 첫째 누나 김옥순(65·영광군 남면 남창리)씨는 "돈 벌러 객지로 나갔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전남 빈소를 지키다 이날 돌아

온 김옥순씨는 "동서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남편과 인연으로 올라갔다"며 "경황이 없어 어머니한테 동생이 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어 어머니 집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울었다. 김씨의 후배인 대덕리 이장 김희태(54)씨는 "형님이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떠났지만 1년에 4~5차례 노모를 찾은 만큼 흔하잖았다. 아침에 어르신(김씨의 노모)을 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 다니고 계셔서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안타까워했다. /서부취재본부 조완기기자 wncho@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급 속액 하나만
카드 회사 50%할인 / 영하 10% 할인 / 주유, 의료, 여행 20% 할인 / 학원, 병원 10% 할인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8분 / 해질 17시 21분
달출몰 22시 53분 / 달몰입 11시 43분

찬바람 불어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다.

지역	기온
광주	구름많고간헐비 -1/12℃
목포	구름많고간헐비 1/12℃
여수	구름많음 4/14℃
나주	구름많고간헐비 -5/13℃
완도	구름많고간헐비 -1/14℃
구례	구름많고간헐비 -4/13℃
에남	구름많고간헐비 -4/14℃
장흥	구름많고간헐비 -4/14℃
고흥	구름많음 -3/15℃
순천	구름많고간헐비 0/13℃
영광	구름많고간헐비 -2/12℃
진도	구름많고간헐비 -2/14℃
전주	구름많고간헐비 -2/11℃
남원	구름많고간헐비 -7/11℃
옥산도	구름많고간헐비 7/12℃

시간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물증지수	노출증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일)	29(월)	30(화)	1(수)	2(목)	3(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0/8	0/12	3/14	5/12	5/13	3/12

생활 게시판

화측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위남경씨 장남 성범군 박광영·최옥희씨 막내 해연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이묘신(기아자동차)·문선례(도원꽃농원)씨 장남 정용군 김성석(보성농돈 이사장)·이애순씨 장녀 선혜양=27일(토) 오전 11시 40분 광주 메리어트웨딩 1층.
▲윤순자씨 장남 전태안군 고점석·김애길씨 장녀 아라양=27일(토) 낮 12시 30분 천주교 광주 삼각동 성당.

▲황경목(분향초등학교 교장)·이삼임씨 장남 정호군 김중태·마영숙씨 막내 세영양=27일(토) 오전 11시 4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1층(고운홀)
▲최찬범·남현숙씨 장남 준성군 김영준(광주시 동구 총무국장)·노숙희씨 차녀 진양=27일(토) 오전 11시 5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웨딩홀.
▲윤영기(전 전남도청본부장)·백영자씨 차남 상훈(금호산업)군 홍순원·조계옥씨 장녀 영순(인천계양고 교사)양=27일(토) 오후 1시 30분 서구 삼부지구 힐리데이인 호텔 3층(구 에벌루션).
▲여관구(대성약국)·최영숙씨 차남 인혁군 박기운·나유덕씨 막내 혜선양=28일(일) 낮 12시 광주 호텔 예술의 전당 5층(벨라지오홀)

▲김진수(한국조세 연구원)·이현숙씨 아들 영빈군 정영준(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한미옥씨 딸 승연양=28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아모리스홀) (구 강남 LG타워)
부음
▲고종삼씨 별세 진형(영산성지교 교장)·진환(조선대 겸임교수)·진구(광주시 북구청)·진석(조선대교수)·진광(순천대 교수)씨 부친상=발인 2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윤계임씨 별세 유근창·근호·근혁·근철·근상·철·근기(전남도의원)씨 모친상=발인 28일(일) 곡성장례식장. 061-362-7575. 010-3613-7901.
▲김병주씨 별세 기환·두환·정환·채순·채성씨 부친상=발인 28(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김기순씨 별세 김병철·병환·병진·숙희씨 모친상=발인 28(일) 무등장례식장. 062-515-4488.
▲한순임씨 별세 서춘중·김순·명옥씨 모친상 김준수(호남매일 전무이사)·박기호(부산 중구 동광동장)씨 빙모상=발인 28(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재수·재형·재호 씨 부친상 김중구 부부 27일(토) 08시30분 장지:강진선영 연락처: 상 발인:11월28일(일) 00시40분 장지:영락 250-4410
▲박수세·도원 씨 부친상 이재환·김석중 씨 공영(화순시서) 연락처:250-4410
▲유영석·영복·영수·영구 씨 모친상 고희석·빙부상 발인:11월27일(토) 00시40분 장지: 김태완·김성호·이재철 씨 빙모상 발인:11월 28일(일) 영락공원 연락처:250-4409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추 금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현순 님(여/86세)
주/부: 김수부, 양수 / 안호순, 형수 / 김미수
주/부: 김윤자 / 김미수, 미리
•호실:401호 •발인:11월 28일 •장지:영락공원

故 김정준 님(남/69세)
주/부: 김명환 / 조진숙, 영관 / 최현숙
주/부: 김명성 / 김재철
•호실:101호 •발인:11월 27일 •장지:영락공원

故 박계중 님(남/61세)
주/부: 박정식 / 김민욱
•호실:102호 •발인:11월 28일 •장지:영락공원

추 금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